

화 대처능력 그리고 효율적 항만개발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등을 분석하여 통일이후 우리 나라에 효율적인 남북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와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항만의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영모형을 이용하여 항만경쟁력 강화 요인을 설정 항만 전문가를 무작위로 1천명선정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350개가 회수되었고, 그중 유효설문 338매(33.8%)를 가지고 실증 분석하였다. 이 분석으로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의 공헌도 및 항만경쟁력 강화 시급한 해외거점항만개발과 북한항만개발의 지원 그리고 항만관리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항만조직의 개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항만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연구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항만경쟁력은 i) 내부프로세서 요인 : 항만조직의 경영혁신수준, 효율적인 성과평가제도, 성과평가능력, 동기부여수준과 능력, 항만담당자의 항만조직몰입도, 교육훈련수준, 의사소통채널, 조직의 지식공유수준, ii) 항만정책방향 : 전담조직, 항만정책과 전략, 시장매카니즘, 범국가적 인식, 일관성과 이를 지원하는 자금조달능력, iii) 항만서비스수준 : 대기시간 최소화, 항만물류정보시스템, 항만자동화, 항만운영능력, 서비스제공 능력, iv) 항만운영요인 : 운영의 자율성, 항만환경, 원가절감, 도시계획과 균형 등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며, 항만 경쟁력은 그 중요도에 비해 실제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정책당국과 항만 관리자들은 이 요인들의 수준향상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항만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항만정책부문의 강화와 항만전략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항만개발과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현재 항만자치공사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항만관리체제의 변경이 가장 큰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항만전문가들은 항만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항만관리형태의 변경부문은 가장 관심밖의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을 정책당국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항만이용자들은 항만관리권의 변경보다는 항만이용자의 서비스향상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의 항만관리 참여 주장이 항만경쟁력 향상 요인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온 연구결과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 4. 韓國海運産業의 政治的費用 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研究

해운경영학과 조준걸  
지도교수 안기명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MF관리체제 이후 정부의 요구와 더불어 산업의 특성상 정부나 금융기관에 매우 의존적이며, 부채비율이 높고 시장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외항선사들의 정치적 비용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련요인들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정치적비용의 결정요인을 밝혀냄으로서 외항선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회귀분석모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정치적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하였다. 상기의 실증연구에 의거한 가설검정결과를 요약하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모든 규모변수(매출액, 총자산, 시장점유율)와 해운기업의 정치적 비용은 유의적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형의 적정성과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인 정치적비용에 대한 영향력측면에서 볼 때, 규모변수 중에서 시장점유율이 제일 설명력이 크고 그 다음으로 매출액규모 그리고 총자산이 제일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설이 분명하게 검정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과 기업규모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즉 해운산업에서는 규모가 큰 해운기업일수록 정치적 비용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둘째로, 가설검정결과에 의하면, 5개 유형의 영향변수 중에서 정치적 비용과 가장 유의적인 정의 관련성을 보여 주고 있는 변수는 부채비율이다. 이러한 검정결과는 우리나라 외항선사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대기업으로서 준조세부담 등의 정치적 비용에 노출되기 쉬울뿐더러 부채비율도 높은 기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한국해운산업은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주요 영업용 고정자산인 선박을 주로 정부의 정책금융이나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의존하여 건조하거나 매입하고 있어 이러한 해운산업의 속성이 반영된 검정결과로 볼 수가 있다.

셋째로, 해운산업의 정치적비용과 자본집약도간의 관련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99년도에 총자산규모 변수로 통제하였을 경우에만, 다소 약한 부의 관련성을 보여 줄 뿐 매출액규모와 시장점유율 통제변수하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매출총이익모형에 의해 가설을 검정한다면, 가설을 입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외항선사들의 정치적 비용과 해운산업의 주요 특성인 자본집약도간에는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넷째로, 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과 해운산업의 수익성(본 연구에서는 영업이익율로 측정함)과의 관련성여부를 검정한 가설검정결과에 의하면, 수익성이 높은 해운기업일수록 정치적 비용에 노출이 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해운산업의 특성상 규모가 큰 기업은 선박척수가 많은 기업이며 따라서 부채비율도 높으며, 대기업 일수록 계획조선자금 등의 정책적 배려가 가능하여 이러한 산업의 수익성 특성이 본 연구의 가설검정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로, 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과 해운산업의 위험수준(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변동으로 측정함)과의 관련성여부를 검정한 결과에 의하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외항선사들의 법인세 부담정도나 준조세 부담정도와 기업의 위험수준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1960년대부터 볼과 브라운의 연구를 필두로 실증적 회계에 대한 수 많은 연구가 쏟아졌다.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정하는 경쟁가설(기계적 가설과 무영향가설)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회계절차의 선택과 회계정책분야에서 대표적인 검정가설인 부채/지분가설, 보상계획

가설 그리고 규모가설이 그 동안 대표적으로 검정되어온 가설이다. 특히 규모가설은 여러 측면에서 검정되고 있는데, 기업의 정치적 노출과 관련하여 정치적비용과의 관련성을 유무를 검정하여 왔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극히 일부의 실증연구에서만 유의적으로 검정되었으며, 많은 실증연구에서 규모가설은 유의적으로 검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운기업의 정치적 비용과 모든 규모변수(매출액, 총자산, 시장점유율)는 유의적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규모변수 중에서 시장점유율이 제일 설명력이 크고 그 다음으로 매출액규모 그리고 총자산이 제일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설검정결과 는 해운산업의 속성이 반영된 검정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해운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부채비율이나 해운위험이 월등히 높은 산업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과 유지는 당연히 정치적인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해운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은 보유선박의 척수에 당연히 비례하기 때문에 규모변수중에서도 시장점유율 규모변수가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로 도출된 것은 해운산업의 속성상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이제는 우리 해운산업도 개방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세계 해운시장은 그 어느 시장에 못지 않게 경쟁이 치열한 경쟁적 시장이므로 우리 해운산업이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적 노출관계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우리 나라 은행 합병의 효율성 분석

해운경영학과 유 학 수  
지도교수 이 기 환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지난 1997년 10대 재벌 중의 하나인 한보의 파산과 기아자동차의 부도유예협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실체에 회의를 갖기 시작하고 당시 33개의 국내금융기관 가운데 5개 은행이 퇴출되고 5개 은행이 합병 소멸됨으로서 새로운 금융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진입 등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OECD 가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은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금융기관의 합병이 최선의 해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의 압력은 금융기관별로 하여금 최선의 선택보다는 생존의 선택으로 합병하도록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합병이 주로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인위적인 합병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영효율성 추구를 위한 자발적 합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분석은 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여부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은행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규모를 대형화하고 업무를 다양화하여 수익규모를 증대하고, 수익원을 다원화하며 영업자산의 투입과 활용을 효율화하므로 시장지배력을 확충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동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